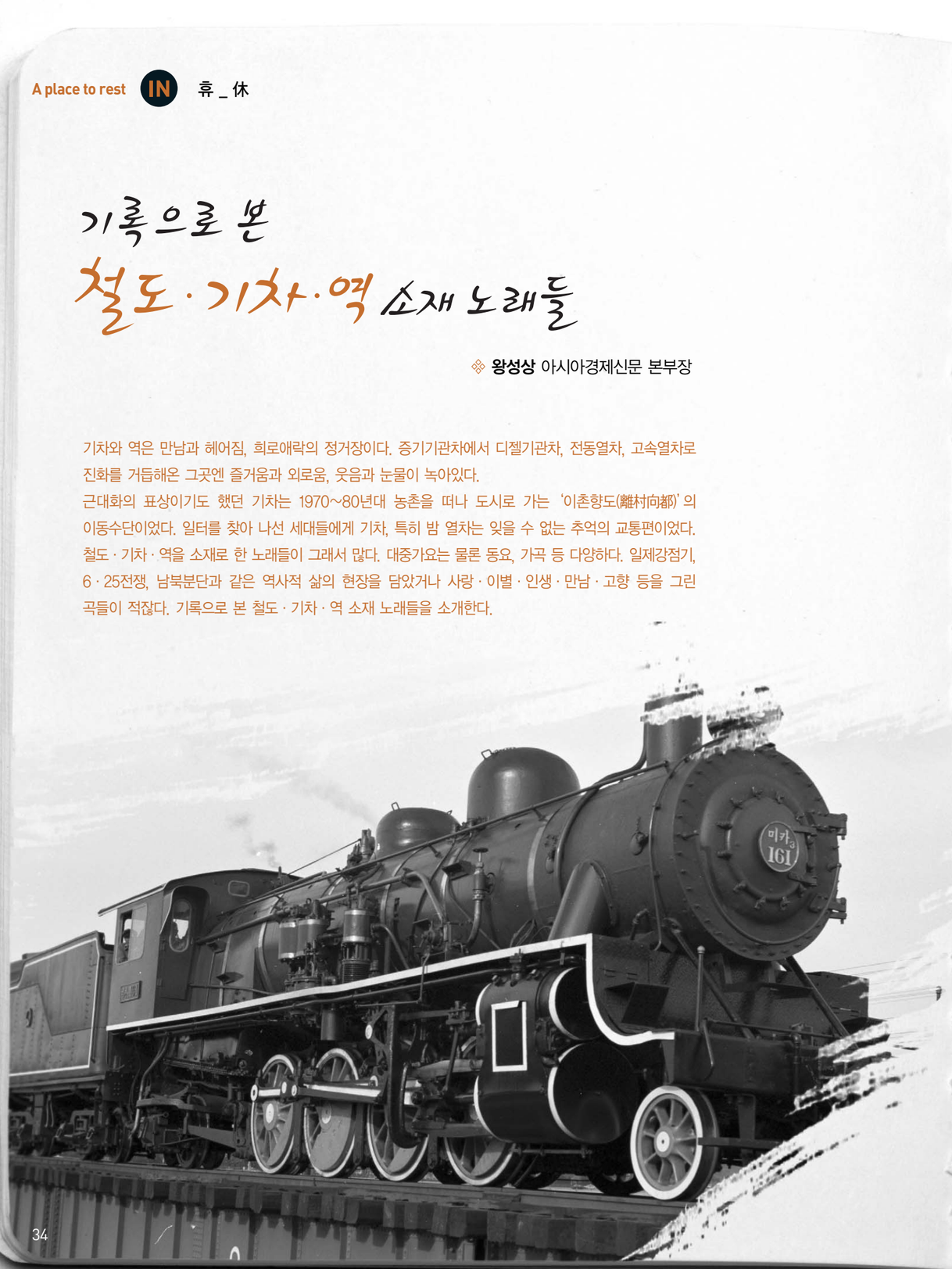
기록으로 본 철도·기차·역 소재 노래들

왕성상 아시아경제신문 본부장

기차와 역은 만남과 헤어짐, 희로애락의 정거장이다.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 전동열차, 고속열차로 진화를 거듭해온 그곳엔 즐거움과 외로움, 웃음과 눈물이 녹아있다.
근대화의 표상이기도 했던 기차는 1970~80년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이동수단이었다. 일터를 찾아 나선 세대들에게 기차, 특히 밤 열차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교통편이었다. 철도 · 기차 · 역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그래서 많다. 대중가요는 물론 동요, 가곡 등 다양하다. 일제강점기, 6 · 25전쟁, 남북분단과 같은 역사적 삶의 현장을 담았거나 사랑 · 이별 · 인생 · 만남 · 고향 등을 그린 곡들이 적잖다. 기록으로 본 철도 · 기차 · 역 소재 노래들을 소개한다.



최초 철도노래 〈경부철도가〉, 만요 〈서울구경〉

철도소재 노래는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한다. 국내 최초 철도관청은 1894년 7월 농상공부 공무아문에 설치된 철도국이다. 1899년 9월 18일 국내 1호 철도노선인 경인선이 개통됐다. 이어 1905년 1월 경부선, 1906년 4월 경의선, 1914년 1월 호남선, 같은 해 9월 경원선, 1936년 12월 전라선, 1942년 4월 중앙선이 개통됨으로써 철도의 뼈대가 갖춰졌다.

경인선을 기점으로 한 철도가 놓이면서 철도소재의 창가들이 선보였다. 1908년 최남선이 〈경부철도가〉를 발표했다. 철도노래로선 국내 최초로 6절까지 돼있다.

근대문명의 이기인 철도개통을 찬양한 것으로 1908년 신문관에서 펴낸 단행본에 실렸다. 원문은 고문체이나 한자를 섞은 현대문과 띄어쓰기로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창가 중 2기에 속하는 것으로 노래 앞쪽엔 4분의 2박자 4절로 된 부곡(附曲)이 있다. 다른 창가처럼 여럿이 부르도록 꾸며졌다. 그해 한쪽 면에만 노래가 실린 레코드가 처음 팔리기 시작했고 〈경인철도가〉 · 〈경의철도가〉 등 노선별 노래들도 이어졌다.

뒤이어 나온 기차 관련 노래는 〈서울구경〉으로 작자미상의 만요다. 편곡을 새로 해 음반에 담았다. 노래를 맨 처음 부른 이는 '홀쭉이와 뚱뚱이'로 유명한 원로코미디언 양훈, 양석천이다. 그 다음이 서영춘이 불렀고 이어 요들을 넣어 부른 게 둘다섯이다. 이 노래는 유행가라기보다 코미디소재로 더 많이 불렸다. 하지만 언제 누가 만들고 불렀는지, 가사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구전가요'로 소개되기도 한다.

〈시골영감 기차놀이〉로도 알려진 이 곡의 정확한 제목은 〈유쾌한 시골영감〉이다. 1936년 콜롬비아레코드에서 강홍식 노래로 발표했다. 가사를 쓴 사람은 범오(작사가 유도순씨 필명으로 추정), 작곡자는 가사지에도 적혀있지 않다. 제목 앞에 '재즈 송'이라고 돼있어 외국 곡을 빌려 가사만 붙인 것으로 보인다.

피난민, 분단 아픔 그린 〈이별의 부산정거장〉 · 〈무정열차〉 · 〈녹 슬은 기찻길〉



▶ 개성발 월남열차(1945년, CER0000160)

철도 관련 노래는 6 · 25전쟁을 앞뒤로 본격 나오기 시작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1954년 발표된 곡으로 휴전협정(1953년 7월 27일) 뒤 힘겨운 피난생활을 접고 귀향하는 풍경을 그렸다. 박시춘 작곡, 유호 작사, 남인수(본명 강문수) 노래로 폭스 트로트곡이다. 대중의 감성과 정확히 공감대를 이룬 이 노래로 남인수는 '만년 톱 가수'로서의 관록을 증명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가사 · 곡조 · 박자가 절묘한 노래다. 특히 전주가 백미다. 열차바퀴가 굴러가는 듯한 금속성의 규칙적 울림과 공명효과, 남인수의 애간장을 끊어내는 창법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해준다. 2절에 나오는 '십이 열차'는 열차번호다. 노래가 히트하자 1961년 같은 제목의 영화도 개봉됐다. 남인수 노래 중엔 철도와 관련된 게 많다. 〈무정열차〉 · 〈울리는 경부선〉 · 〈비오는

정거장〉 등 경부선시리즈를 발표해 히트했다. 1962년 6월 30일 45살에 별세한 남인수의 진주 생가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동상과 노래비도 세워져 있다.

6 · 25전쟁 후 가요는 민초들을 달래주는 단박약 구실을 했다.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남인수 노래의 〈무정열차〉도 그런 가운데 상종가를 쳤다. 1956년 말 선보인 이곡은 경부선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피난민의 애달픈 마음을 그렸다. '제2의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라고도 불린다.



▶ 휴전선의 열차(1950년대, CET0048152)

'휴전선 달빛아래 녹 슬은 기찻길…' 로 나가는 〈녹 슬은 기찻길〉은 판문점 철길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노래가 만들어진 건 39년 전이다. 1972년 8월 29일(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기 전날) 밤 평양에선 남쪽 대표단 환영행사가 열렸다. 이범석 씨(전두환 대통령 시절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별세)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갔고 기자들도 동행했다. 취재진 중엔 한국일보 김관현 기자도 있었다.

그는 그날 오전 육로로 대표단을 따라나섰다. 그는 우연히 차창에 스쳐 지나가는 판문점 부근 철길입간판의 '철도중단점-철마는 달리고 싶다' 는 글귀에 눈길이 멈췄다. 통일로~임진각 도로가 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멈춰서야 하는 현실에 가슴이 저며 왔다. 그는 그런 안타까움을 취재수첩에 적었다. 신문사로 돌아온 그는 기사를 마감한 뒤 그날 밤 서울 명동 술집에서 친하게 지냈던 작곡가 홍현걸씨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날따라 김 기자의 귀엔 무대에 오른 가수들 노래에서 녹 슬은 기차바퀴의 환청이 들렸다. 자정이 돼가면서 김 기자는 취재 갔다 온 얘기를 하다 홍씨에게 "노래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작사는 자신이 하고 작곡은 홍씨가 맡기로 했다. 둘은 이튿날 행동으로 옮겼다. 김 기자는 취재 때 메모내용에다 술자리에서 떠올랐던 영감을 바탕으로 노랫말을 썼다. 홍씨는 9시간 만에 곡을 완성했다. 노래는 일주일 뒤 나훈아가 취입, 적십자회담, '7 · 4남북공동성명' 발표 등 해빙무드를 타고 인기가도를 달렸다.

역을 배경으로 한 〈비 내리는 호남선〉 · 〈대전블루스〉

선거 때면 생각나는 추억의 가요가 하나 있다. 손로원 작사, 박춘석 작곡의 〈비 내리는 호남선〉이다. 1956년 영화녹음기사 출신 가수 손인호(본명 손효찬)가 불렀다.

노래는 정치와 관련돼 있다. 자유당시절 '못 살겠다 갈아보자' 며 야당(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신익희(당시 64세) 선생이 호남선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급서하는 일이 벌어졌다. 호남지방 연설을 위해 가던 중이었다.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일어난 일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비 내리는 호남선〉은 추도곡처럼 애창됐다. 그 바람에 노래와 가수는 인기를 모았다. '신익희 선생 미망인이 작사해 만든 노래' 라는 등 근거 없는 말들이 나돌았다. 소문이 퍼지면서 가수 · 작사가 · 작곡가가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노래는 영화 주제가로도 사랑을 받았다. 1963년 상영된 '비 나리는 호남선' 끝 장면에 노래가 흘러나와 가슴을



▶ 대전역사 준공 모습(1959년, CET0031284)

찡하게 했다. 그 때 촬영지는 당시 전남 광주역이다.

안정애가 부른 〈대전블루스〉는 슬로풍의 트로트로 애잔하게 들린다. 노래는 1959년 대전역을 소재로 만들어졌다. 작사자 최치수씨가 신세기레코드사 직원으로 지방출장을 다니던 때였다. 어느 날 대전을 거쳐 광주, 목포로 가기 위해 대전역에서 내려 여관에 들어갔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아 역 쪽으로 산책을 갔다. 마침 목포행 완행열차가 떠나기 직전이었다. 손님들은 기차에 오르고 플랫홈엔 젊은 남녀가 이별이 아쉬워 헤어질 줄을 모르는데 기차는 기적을 울리며 떠날 채비를 했다. 최씨는 이것을 머리에 담으며 여관으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다. 〈대전블루스〉 노랫말이 태어난 것이다.

최씨는 서울로 올라오자 김부해씨에게 작곡을 부탁했다. 김씨는 블루스리듬을 정한 다음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음반은 회사가 문을 연 후 최다판매량을 기록했다. 1999년 9월 18일 '한국철도 100주년' 을 맞아 대전역 광장에 노래비가 섰다. 추억의 대중가요 〈대전블루스〉는 2009년 8월 14~16일 대전시 동구가 주최한 '대전역 0시 축제' 로 되살아났다.

고모역 언덕길 배경 〈비 내리는 고모령〉, 남자 고아 순애보 〈이별의 종착역〉

〈비 내리는 고모령〉은 사모곡에 가깝다. 노래무대는 대구시 만촌동 호텔인터불고(옛 파크호텔) 남쪽 길에서 팔현마을로 넘어가는 고개(고모령)다. 호동아씨(유호)가 노랫말을 붙여 1946년 현인(본명 현동주)이 취입한 이 노래엔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

작사가 유호씨가 부산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던 중 고모역에 멈췄을 때 멀리 산모퉁이에서 모자의 이별장면을 보고 노랫말을 썼다. 또 다른 설은 유호씨가 지도에서 우연히 찾은 '고모' 란 지명에서 착상, 작사했다는 얘기도 있다.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멀리 간 자식과 어머니가 헤어졌던 곳이었다는 말을 듣고 이별의 사연을 담은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별의 종착역〉은 남자 고아의 순애보를 노래했다. 손석우 작사 · 작곡, 손시향이 부른 이 곡은 1957년 영화 주제가로 태어났다. 복삼산업사가 만든 같은 제목의 영화는 6 · 25전쟁을 배경으로 했다.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살았던 한 남자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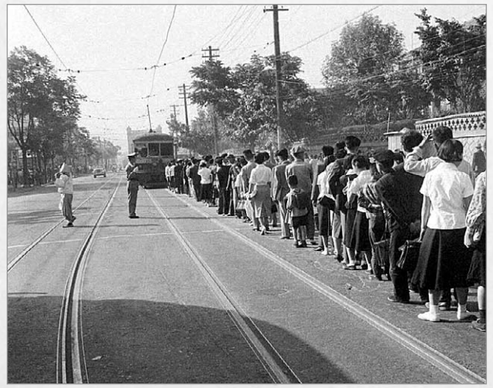
어릴 때 고아원시절 자신을 돌봐줬던 보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나 그가 전사한 줄 알고 군의관과 결혼한 애인과의 기구한 만남과 이별이 관중들을 울렸다. 적군포로수용소에서 구사일생 도망쳐온 그에게 그녀의 남편(군의관)은 기차표를 건넸다. 멀리 떠나라는 무언의 표시였다.

민초들 삶 노래한 〈이정표〉 · 〈추풍령〉

1960년 남일해가 불러 대히트한 〈이정표〉는 민초들 삶을 노래했다. 월견초(본명 서정권) 작사, 나화랑 작곡으로 매혹의 저음가수 남일해를 가요계 정상에 올려놨다.

'이정표'는 육로의 이정(里程)을 기록한 일람표로 철길에 서 있는 안내팻말이다. 노래압권은 첫 소절의 '해지는 영마루 홀로 섰는 이정표'다. 이 대목에서 음률이 가슴을 툭 치고 간다. 노래가 만들어졌을 땐 6 · 25전쟁 상흔들이 곳곳에 배어있고 이념대립도 심했다.

민초들에겐 마음의 이정표가 절실했다. 노래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 전차를 기다리는 시민 모습(1961년, CET0031305)

전범성 작사, 백영호 작곡, 남상규가 부른 〈추풍령〉은 추풍령(해발 221m) 주민들 삶의 발자취를 읊조린 가요다. 1965년 남상규의 데뷔곡으로 그와 추풍령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줬다.

노래가 히트하면서 추풍령은 전국 명소가 됐다. 〈추풍령〉은 영동군민가라 할 만큼 지금도 사랑 받고 있다.

철도와 기차, 전차는 남녀 만남의 오작교 구실도 했다. 1960년대 전차시절을 노래한 〈마포종점〉은 1967년 만들어진 추억의 가요다. 정두수 작사, 박춘석 작곡, '은방울 자매' 노래로 인기였다. 하동 출신의 작사가 정두수씨가 상경, 서울 도당동에 살던 중 동네부근의 마포 전차 종점을 소재로 노랫말을 지었다. 1899년 5월 17일 개통된 전차는 서민의 발 노릇을 했지만 1968년 11월 29일 철거됐다.

추억과 낭만의 가요 〈강촌에 살고 싶네〉

철도노래 중엔 지역의 아름다움과 추억, 낭만을 그린 곡들도 있다. 나훈아가 부른 〈강촌에 살고 싶네〉는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옆엔 경춘선 강촌역이 있다. 1965년 서울서 사업을 하던 작사가 김설강(김성휘)씨가 어느 날 춘천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늦은 오후 기차를 타고 상경 길에 오른 그는 차창에 스치는 경치를 보면서 상념에 잠겼다. 어느덧 강촌역에 닿았고 땅거미가 앉았다. 차창 밖의 강촌역은 너무 아름다웠다. 강과 푸른 숲,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골집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물새가 날고 뻐꾹새도 울어댔다. 김씨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취해 하루를 묵기로 했다. 배를 타고 강촌마을로 들어간 그는 저녁식사 후 산기슭의 여인숙에 묵었다. 방에 눕긴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름다운 강촌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전경을 보고 느낀 대로 메모했다. 〈강촌에 살고 싶네〉 2절 가사가 먼저 만들어지고 있었다. '해가 지면' '희미한 등불 밑'이란 표현들이 강촌에 도착한 밤에 쓴 노랫말이란 점을 짐작케 한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강촌의 이곳저곳을 살폈다. 고요한 아침의 강촌도 전날 밤 못잖게 아름다웠다.

버드나무가 많은 강변의 경치 등 그의 메모는 이어졌다. 노래 1절 가사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첫머리의 '날이 새면'이란 표현이 잘 말해준다. 작사는 1박2일 만에 이뤄졌지만 작곡은 4년 뒤 김학송씨(현재 미국 거주)가 했다.

이규석이 부른 〈기차와 소나무〉는 소박함과 한가로운 맛이 난다. 기차 · 간이역 · 소나무 · 기적소리 등 노랫말들이 추억과 낭만, 정감이 어린다. 노래는 1988년 이규석이 작사 · 작곡하고 취입까지 했다. 기차가 서지 않는 시골의 조그만 간이역에 서 있는 작은 소나무를 그림 그리듯 나타냈다. 기차가 지날 때마다 잊어진 추억을 떠올리는 한 연인의 모습도 보인다.

노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 이규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좀 과장하면 10분쯤 물 흐르듯 쉽게 쓴 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나를 가수로 20여년 지탱시켜준 효자 같은 곡이며 나를 그 곡 안에 가둔 불효자이기도 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별을 그린 〈기적 소리만〉 · 〈밤에 떠난 여인〉

진남성(본명 진원용) 작사 · 작곡, 배성이 부른 〈기적 소리만〉은 1971년에 선보였다. 노래 사연은 1967년 가을 해병대 군악대에서 제대한 진남성이 경산역을 맴돌며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교와 대학 동기(홍인선)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경산에서 과수원을 하던 홍인선에겐 대학 때 사귀던 여자 친구가 있었다. 첫사랑이라 그런지 그는 순진하기만 했다. 반면 여자 쪽은 거칠고 당돌했다. 홍인선의 순수한 사랑을 촌스럽게 여겼다. 대학 2학년 때 그 여자는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다. 홍인선은 일과를 그녀에게 편지 쓰는 것으로 보내다시피 했다. 그 뒤 홍인선은 미국서 온 친구로부터 '그녀가 이민가자마자 교포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때부터 홍인선은 폭음하며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행동을 아는 이들도 없었다. 진남성도 뒤늦게 알았다. 군에서 홍인선의 순애보를 작사 · 작곡한 진남성은 이를 들려주기 위해 제대하자마자 경산을 찾았으나 그는 이 세상에 없었다.

김성진 작사 · 작곡, 하남석이 부른 〈밤에 떠난 여인〉은 쓸쓸하고 슬픈 느낌이 드는 가요다. '덜거덕~ 덜거덕~' 기차바퀴 효과음이 특징이다. 1973년 하남석의 데뷔곡으로 발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히트하는 기쁨을 맛봤다.

노래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한 남자에게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마지막 밤기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그 때 애인과의 아쉬운 이별장면을 노래로 만든 게 〈밤에 떠난 여인〉이다.

인생, 젊음을 담은 〈차표 한 장〉 · 〈첫차〉 · 〈입영열차 안에서〉 · 〈춘천 가는 기차〉

〈차표 한 장〉은 인생을 달리는 기차에 빗댄 가요다. 조동산 작사, 원희명 작곡, 송대관 노래의 이 곡은 '인생이란 기차'에 올랐지만 언젠가는 죽음이란 종착역에 내려야 한다는 우리들 얘기다.

노래엔 송대관의 힘들었던 젊은 시절이 얽혀 있다. 그는 고교 때부터 전주KBS 전속가수로 활약했던 소리꾼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렵게 자란 그는 가수가 되기 위해 전주영생고를 나와 1965년 여름 기차를 무임승차해 상경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래로 승부를 걸었다.




▶ 입영장정 열차(1963년, CET0044783)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를 내놓으며 가요계에 신고한 그는 〈해 뜰 날〉 · 〈차표 한 장〉 등으로 유명해진 뒤 서울역으로 가 고향에서 올 때 공짜로 탄 기차요금의 몇 배를 냈다.

신상호 작사 · 작곡, 서울시스터즈가 부른 〈첫차〉는 1980년대 중반 3인조 여성그룹으로 인기를 끈 서울시스터즈의 히트곡이기도 하다. 노래가 선보인 건 1986년. 서울음반이 만든 서울시스터즈 1집 음반 A면 머리 곡으로 실려 대중을 파고들었다. 노래는 순식간에 떴다. 그러나 2006년 〈괜찮아요〉란 음반을 내고 활동해온 서울시스터즈의 방실이는 2007년 뇌졸중으로 투병 중이다.

〈입영열차 안에서〉는 가수출신 작곡가인 윤상이 곡을 쓰고 편곡도 했다. 작사가 박주연은 입대를 위해 타고 가는 기차간에서의 한 젊은이 마음을 진솔하게 그렸다. 김민우가 1990년에 불러 빅히트한 이 노래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란 가사로 군에 가는 장정들 심금을 울리며 소녀 팬들을 사로잡았다.

〈춘천 가는 기차〉는 싱어송라이터인 가수 김현철의 데뷔곡으로 1989년 8월에 내놓은 첫 번째 음반에 실렸다. 김현철이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른 이 곡은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는 길에 옛 사랑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이다.

'호남선의 또 다른 이름' 〈남행열차〉, 황등역 무대 〈고향역〉

〈남행열차〉는 〈목포의 눈물〉과 함께 '호남의 2대 애향가' 라 해도 손색없다. 〈정거장〉과 함께 기차를 소재로 해서 부른 김수희의 대표 곡이다. 손인호의 〈남행열차〉도 있긴 하나 박자, 멜로디, 가사, 분위기가 다르다. '짠 짜짜짜짠 짠짠 어둠을 뚫고 야간열차야 가자~' 로 나가는 박진도의 〈야간열차〉는 그 내면풍경을 잘 보여주는 노래로 이 곡과 다르다.

〈남행열차〉는 1982년에 만들어졌으나 4년 뒤에 히트했다. 같은 해 김수희가 발표한 〈멍에〉가 공전의 히트를 했지만 대마초파동으로 시련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남행열차〉가 선풍적 인기를 끌어 재기할 수 있게 만든 '보물 곡' 이다.

나훈아가 부른 〈고향역〉은 언제 들어도 정겹고 푸근하다. 1960~70년대 산업화와 고속성장기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 '망향의 노래' 는 그 무렵 대중음악의 중요 메뉴였다. 〈고향역〉은 그 가운데 대표 곡이다. 〈고향역〉은 1971년 신인작곡가 임종수 작사 · 작곡, 나훈아 노래의 〈차창에 어린 모습〉에서 비롯됐다.



▶ 호남선 이정표(1959년, CET0094090)

〈차창에 어린 모습〉은 발표되자마자 금지곡이 됐다. 그러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 법. 나훈아가 "〈차창에 어린 모습〉이 너무 좋은 곡인데 아쉽다"며 가사와 리듬을 바꾸자고 제의해온 것이다.

임씨는 용기를 내어 학창시절 기차통학 때를 생각하며 작업을 다시 했다.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던 시골 역을 떠올리면서 노랫말을 다시 쓰고 고고리듬으로 바꿨다. 그렇게 해서 1972년 영원불멸의 히트곡 〈고향역〉이 탄생했다. 노래무대는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호남선 황등역이다.

독재시절 때 만들어진 영화주제가 속에서도 철도 관련 내용이 나온다. 송창식 작사 · 작곡, 송창식 노래의 〈고래사냥〉이 그 노래다. 강하게 외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1974년에 만들어졌으나 대중에 본격 알려진 건 이듬해부터다. 서울대 출신 하길종 감독의 영화 '바보들의 행진' 주제가로 들어가면서다.

만화영화 주제곡 〈은하철도 999〉와 그 밖의 노래들

금수레 작사, 마상원 작곡, 김국환 노래의 〈은하철도 999〉는 MBC-TV가 방영한 만화영화 주제가다. 원곡은 〈눈물 실은 은하철도〉이다. 우렁차게 달리는 증기기관차의 만화그림에 기적과 기계소리가 배경으로 깔려 이채롭다. 40~50대가 된 그 무렵 어린이들은 이 영화를 보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어린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밖에 가곡 〈철도의 노래〉(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와 동요 〈기차 길 옆〉(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 · 〈장난감 기차〉 · 〈기차를 타고〉(김옥순 작사, 김태호 작곡)도 있다. 〈기차를 타고〉는 1989년 제1회 KBS 창작동요대회 때 우수상을 받은 곡이다.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들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기차놀이〉(김례삼 작사, 권정숙 작곡, 연길시소년궁 노래)도 빼놓을 수 없다. 동요 〈기차놀이〉(이파봉 작사, 박태현 작곡)도 있다. IN

필자 소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대학원(언론학 석사)을 나와 1979년 한국경제신문 기자로 언론계 생활을 시작해 지금에 이른다. 특히 '남인수 가요제' 에서 우수상을 받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에 등록(865번), 가끔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 〈이별 없는 마산항〉 등 여러 곡을 취입했다.